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노 동 일
경희대 법과대학 부교수

권력과 머리 위의 칼날

아 놓은 예리한 칼이 왕좌를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1961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유엔연설 중에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이를 인용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로 미·소가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으면서 ‘다모클레스의 검’은 일촉즉발의 위험을 뜻하는 말로 굳어졌다. 하지만 본래는 권력의 자리가 항상 칼날 아래 있는 왕좌처럼 위험한 것임을 강조한 내용이라 생각한다.

권력이 주는 행복만 누리다가는 칼날에 다칠 수 있다. 권력이 높을수록 매달린 칼날에 가까이 가는 셈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고 권력자나 그 주변인일수록 더욱 권력의 위험을 경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풍파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총선 백서가 나오자마자 윤상현·최경환 의원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비박이 또 한 번 일선분사 체비를 갖추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는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쪼그라들어도 새누리당은 명색이 집권당이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모이면 나라의 엄중한 상황을 걱정한다.

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은 늘어만 간다. 그래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은 안보라고 한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감수하더라도 사드 배치를 하는 논리도 그런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안보는 평안한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끼리 벌이는 먹살잡이는 언제 끝날지 가능조차 어렵다.

사드 배치의 찬반을 떠나 지금 벌어지는 소동은 집권세력의 미숙한 국정 운영 때문이다. 우리 내부의 문제조차 제대로 풀어갈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커질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더더구나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 새누리당의 책임이 참으로 크고 무거움을 느끼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모두가 한 층의 권력 다툼에 취해 있을 뿐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모두가 권력을 누리려고만 했지 권력의 엄중함을 알지 못한 데 있다. 특히 권력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윤·최 의원은 모두 ‘대통령의 뜻’을 받자하고 있다. 여우가 호랑이의 그림자를 빌려 위세를 과시하는

호기호위의 전형적 모습이다. 총선 전 드러난 것처럼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 욕설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여우에 불과하지만 호랑이를 들먹이면 주위에서 겁먹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들 앞에서 그토록 안하무인 격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권력의 단맛에 취해 권좌 위에 달린 칼날을 알지 못한 것이다. 시기가 문제일 뿐 한 울 머리칼에 매달린 칼날은 조만간 떨어질 때가 온다. 멀리 역사적 사례를 들 것도 없다. 바로 지난 정권에서 이상득·박영준·최치중 등의 추락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문제는 ‘다모클레스의 검’이 야기가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한 본뜻으로 끝나지 않는 데 있다. 후세의 사용법처럼 우리나라가 칼날 아래 놓인 것과 진배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 위험이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권력이란 그걸 믿고 함부로 나뉠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친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알려 주어야 할 텐데... 머리 위에 칼날이 떨어져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인지 걱정만 더할 뿐이다.

社說

더민주 ‘5·18 특별법’ 당론 채택 왜 못하는가

옛그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이계호 의원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애국·남조·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 제창 건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발의 요건을 갖춘 채 보름을 기다려야만 했다. 법안 처리가 용이하도록 더민주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은 후 당론 발의를 요청했지만 현안 속출을 이유로 당이 계속해서 미적거렸기 때문이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의원은 결국 일반 법안으로 접수했다.

야권을 대표하는 더민주는 이처럼 내부적으로 법안까지 마련됐음에도 당 위성을 인정한다고만 할 뿐 논쟁을 부렸다. 막상 지역민들의 관심사인 5·18 법안 문제가 대두되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이미 지난 달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5·18 특별

법 개정안 당론 발의에 나선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4·13 총선 이후 하루가 멀다고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더민주에 대해 점차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역 현안 처리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해 놓고 실제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일부에서는 더민주가 대선 정국을 앞두고 몸을 사린다고 의심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꺼리려할지 모를 영남권 지지자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수층을 꺼안으로 눈치를 본다는 시선인데 일리 있는 지적이다.

반발 조짐이 일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렇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더민주는 지역 법안 문제가 대두되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이미 지난 달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5·18 특별

경전선 전남 구간 정부투자 조속 시행해야

호남의 대표적 낙후 기반시설인 경전선(慶全線) 전남 구간에 대한 정부 투자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의 경상도 구간은 이미 복선화와 전철화를 마쳤지만 전라도 구간은 단선철도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선은 우리나라와 나라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가 오래 지속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위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주는 마음으로부터 나오입니다.

기업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못지않게 가치를 극대화 하여야 합니다. 한 두해 장사 할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위정자들은 하루 이틀 정치할 것이 아니라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원불교를 개교하신 소태산 대종사는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이 어려서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우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려서다고 속이고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호랑이가 국민들에게 답할 차례입니다.

KTIX가 운행되면 광주~부산 철도 이동 시간은 5시간 이상 단축된 1시간 40분이 소요돼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된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또 남해안선벨트 활성화를 통한 영호남 교류 촉진과 남해안권 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구간 길이 200km 이상 되는 4대 간선철도 가운데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만 유일한 단선이자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선로도 불량해 화물 이 우회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다. 광주~순천 간 복선화가 지연될 경우 정부가 밝힌 ‘2020년 모든 국토의 KTX 90분 생활권 실현’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부는 호남권과 영남권을 연결해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 남해권 성장동력 확충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른 시간 안에 전철화와 복선화를 끝내는 것이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無等鼓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 1927~2001)가 쓴 ‘음식문화의 수수께끼’에는 보신탄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 대중 인용해 보면 이렇다.

“어느 날 중국 베이징의 영국대사관에서 리셉션이 열렸는데, 중국의 한 장관이 영국 대사의 스페니얼 양개를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그래서 대사는 4개월 뒤 그 개가 새끼를 낳자 선물로 두 마리를 골라 장관의 집에 보냈다.

몇 주일이 지나 두 사람이 공무로 서로 만난 자리에서 대사가 물었다. 그 강아지를, 어떻습니까? 장관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맛있었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먹을 고기가 부족해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강요받는 중국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긴 하다. 하지만 ‘개고기 먹는 문화’를 보는 시각이 국가마다 민족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우리 민족도 개고기를 ‘비교적’ 선호하는 축에 포함되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그런 우리를 예전부터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다. 미국의 진보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관용이 부족하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개를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즐겁게 하기 위해, 즉 벌미로 먹는다.” 초복인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가 잭 런던(Jack London)은 1904년 발표한 리얼리즘 중군기 ‘조선 사람 엿보기’에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 민족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종교칼럼

호기호위(狐假虎威)



정 세 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호기호위(狐假虎威)

승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하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여우를 앞장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과연 여우가 눈에 띄기만 하면 모든 짐승들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앞장선 여우 때문이 아니라 뒤에 오는 자신 때문인지를 호랑이는 몰랐던 겁니다. 지금 초나라는 그 땅이 사방 오천 리에 백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오랑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재상 소해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왕의 나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 여우를 호랑이에 비할 수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는 나라의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망언으로 온 나라를 충격에 들게 하더니 제한적 새벽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한정 사상 조유의 사태에 이어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총선개입 의혹이 공개되면서 ‘호기호위(狐假虎威)’ 사자성이 어의도 정치판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종교가 동남풍의 바람으로 자비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면 정치는 서북풍으로 엄한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동남풍이 도덕의 바람이라면 서북풍은 법률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 수레는 중도에 멈추는 일이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부터 법을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임금다울 때 백성은 가장 백성답습니다. 이러한 청렴한 도덕성과 솔선수범으로부터 권력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4년차 들어 초심을 지키는 사람은 적고 명나라를 망하게 만든 환관 위충헌과 같은 여우들만 판을 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형국을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합니다. 세월호에 이어 성추위의 사드배치 상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통성 없는 정부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내부세력과 외부세력으로 단정하며 내편과 내편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어찌 성추위의 문제가겠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내부세력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외부세력이

란 말입니까? ‘호기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등에 업고 호랑이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라와 나라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가 오래 지속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위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주는 마음으로부터 나오입니다.

기업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못지않게 가치를 극대화 하여야 합니다. 한 두해 장사 할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위정자들은 하루 이틀 정치할 것이 아니라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원불교를 개교하신 소태산 대종사는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이 어려서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우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려서다고 속이고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호랑이가 국민들에게 답할 차례입니다.

기 고

학교교육 혁신, 독서와 토론이 답이다



박 석 주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큰 희망을 걸고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노벨상은 돈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의 현실을 꼬집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본과 미국을 앞섰고, 중국에 비해서 두 배나 높으면서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없다고 강조한다. 내이치는 한국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토론이 없는 연구실 분위기를 들며 토론교육 실태를 지적했다. 즉, 토론도 제대로 못하면서 노벨상만 바라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을 개정 시도 하였다.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불만도 있는 만큼 개정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대한 명분 중의 하나가 미래핵심역량 교육과 배움이 즐거운 수업이다.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많은 지식의 습득에 탐으로 인하여 암기위주의 수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 시험도 암기력을 묻는 것으로 점점되어 왔다. 그래서인지 공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면서 학습의 흥미도나 행복도는 세계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미래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과 배움이 즐겁

고 행복한 교실수업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 교실수업 혁신의 중심에 바로 토론 수업이 있다. 개정교육과정은 교실수업의 변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수업 중의 하나로 토론수업을 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 방식도 지필평가나 선다형평가보다는 과정중심의 평가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이 행복한 참여형 토론수업의 전개, 학생의 수행 활동을 강조하는 과정중심의 평가 방법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자료 개발, 그리고 각종 연구활동과 워크숍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얼마전 교육부에서 주목해야 할 발표가 있었다. 전남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서·토론교육이 교육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정책으로 선정된 것이다. 평가위원들은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독서와 토론교육으로 이를 전국적인 확산의 모델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남의 독서·토론교육은 장만재

교육감이 취임하면서부터 각계의 의견과 연구 결과들을 검토 분석하여 내 놓은 역점사업으로 그 시행 6년째를 맞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독서·토론교육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토론수업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였다. 이제는 국가가 인정하고 이를 확대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독서·토론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남의 독서·토론교육이 특별히 더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독서토론열차 유라시아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시베리아 열차 속에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품게 하고 독서·토론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키웠다. 열차라고 하는 닫힌 공간 속에서 스스로 인내하고 협력하며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희망의 대장정이었던 것이다.

7월28일 2차 유라시아 대장정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중국 접경지역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가는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교육감이 동승한다. 교육감 스스로 독서토론 유라시아 대장정을 제안하였던 이번 학생들과 힘찬한 과정을 함께하며 돌아올 때 어떤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할지 궁금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